

(참고자료-참조63)

제296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제3차(2024.09.26.)_교육문화체육국

○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올해 사실은 많은 성적이 좋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실 교훈과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더 있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좋은 성적 거둘 자신이 있고, 지금 전경준 감독이라고 굉장히 경험이 있고 유능한 감독을 최근에 선임했습니다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전경준 감독과 운명을 같이하면서 반드시 혈세를 아끼고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구단을 만들 수 있다고 이 자리에서 결심을 밝힙니다.